

인도 · 태평양 전략에 대한 주변국 입장, 한국 해군에 대한 함의

한 중 환*

-
- I. 서론
 - II. 인도 · 태평양 전략 주요 내용과 함의
 - III. 인도 · 태평양 전략에 대한 주변국 입장
 - IV. 인도 · 태평양 전략 참여시 장 · 단점
 - V. 인도 · 태평양 전략 참여시 한국해군의 역할
 - VI. 결론
-

《 국문초록 》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자유롭고 열린 인도 · 태평양” 언급 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19년에 미 국방부는“인도 · 태평양 전략”, 미 국무부는“자유롭고 열린 인도 · 태평양 : 공동 비전 추구”를 발표했다. 미국 외교/안보의 핵심인 국방부와 국무부에서 짧은 기간(약 6개월) 내 동일한 전략(인도 · 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 보고서에서 미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 · 태평양 구현을 위해 미국 자체의 노력 뿐만 아니라 동맹 및 파트너국의 협력과 책임분담, 동참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 태평양 주변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적극 참여 또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 동참 요구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사항이 될 수 있는 주변국의 입장과 인도 · 태평양 전략 참여시 장 · 단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인도 · 태평양”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도 · 태평양 전략을 뒷받침하는 주요 수단은 해군력이 될 것이므로, 인도 ·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해군의 역할을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 인도 · 태평양 전략, 주변국 입장, 해군력의 역할

* 해군 소령, 한산도함, 아이오와주립대 정치학 박사

I. 서론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을 대신하여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을 미국의 주요 외교/안보 정책으로 채택했다.¹⁾ 이를 실행하기 위해 2019년 5월 말 새너한(Patrick Shanahan) 미 국방장관 대행은 인도·태평양 구상을 국방부 차원에서 구체화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를 발표했다. 여기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동과 착취적 일대일로 전략을 언급하며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²⁾ 2019년 11월에는 미 국무부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 공동 비전 추구(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를 발표했다. 국방부 보고서와 비교시 국무부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지원과 투자 프로그램, 소규모 다자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³⁾

미국 외교/안보의 핵심인 국방부와 국무부에서 짧은 기간(약 6개월) 내 동일한 전략(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관심과 실행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 보고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현을 위해 미국 자체의 노력 뿐만 아니라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협력과 책임분담, 동참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도·태평양 주변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적극 참여 또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경제/안보 관계를 고려할 때 對 중국 봉쇄가 주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선불리 결정하기 어렵다. 동시에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유보적 입장을 지속하기도 어렵다.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최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함정 파병 요구,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 작전 지원 요구,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한국이 당면한 주요 안보현안도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

1) 송은희, 『인도·태평양 시대 ‘동아시아 지역주의’ 가능성과 한계』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 p.9.

2) 이재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2019) 평가,” 『KIMs Periscope』 제162호 (2019년 6월 21일), p.1.

3) U.S. Department of Stat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https://www.state.gov/a-free-and-open-indo-pacific-advancing-a-shared-vision> (검색일: 2019년 11월 4일), p.7.

이번 연구에서는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 동참 요구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사항이 될 수 있는 주변국의 입장과 인도 · 태평양 전략 참여시 장 · 단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인도 · 태평양”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도 · 태평양 전략을 뒷받침하는 주요 수단은 해군력이 될 것이므로, 인도 ·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해군의 역할을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미 국방부와 국무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도 · 태평양 전략 주요 내용과 함의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인도 · 태평양 전략 참여에 대한 주변국 입장을 살펴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 참여시 예상되는 장 · 단점을 비교하고, 제5장에서는 한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 참여시 한국해군의 역할에 대한 살펴볼 것이다.

Ⅱ. 인도 · 태평양 전략 주요 내용과 함의

1990년 후반부터 인도양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도 · 태평양(Indo-Pacific)은 아시아 · 태평양의 확장된 개념으로 자주 사용되었다.⁵⁾ 2010년 미 국무부 장관 클린턴(Hillary Clinton)이 하와이 연설에서 태평양으로부터 인도에 이르는 지역을 하나로 묶어 “인도 · 태평양 ”이라고 언급하면서 해당 지역의 경제/전략적 의미가 강조되기 시작했다.⁶⁾ 2017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 태평양 지역”을 주장했다고, 2017년 10월 미 국무부 장관 킬러슨(Rex Tillerson)은 “인도 · 태평양 지역이 21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⁷⁾ 2019년 5월 말에는 미 국방부가 인도 · 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는 2017년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과 2018년 1월 공개된 국가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의 하위전략으로 인도 ·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⁸⁾

4) 하영선, 전재성, “인도 · 태평양을 둘러싼 미 · 중의 포석 전개와 한국의 4대 미래 과제,” 『EAI 논평』 (2019년 6월 25일), p.6.

5) 이서향, “미국의 ‘인도 · 태평양’ 구상과 한국의 과제,” 『KIMs Periscope』 제105호(2017년 12월 1일), p.1.

6) 송은희, 전제서, p.17.

7) 김현욱,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IFANS FOCUS』 (2019년 6월 18일), p.4.

8) 이대우,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과 한반도,” 『정세와 정책』 제12호(2019년 7월 2일), p.1.

1. 인도·태평양 전략 주요 내용

2019년 발표된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유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자유(free)”는 외부의 강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주권을 바탕으로 누구와 협력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열린(open)”은 세계 경제발전의 핵심인 해상교통로와 항공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의미한다.⁹⁾ 이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principles)으로 모든 국가의 독립과 주권 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자유(free) / 공정(fair) / 호혜적(reciprocal) 무역, 항해/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규칙과 규범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¹⁰⁾

또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달성하고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3가지 전략(3P : Preparedness, Partnership, Promoting a Networked Region)을 언급하고 있다. 첫째, 준비태세(Preparedness) 강화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중심으로 미군을 현대화하고 전쟁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통합군 준비태세 강화, 전진배치, 훈련시설에 대한 투자, 미사일 방어체제 강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동맹 및 파트너십(partnership) 강화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인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과 같은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주요 국방 파트너인 인도와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스리랑카, 몰디브, 방글라데시, 네팔 등 새롭게 부상하는 파트너 국가들과도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¹¹⁾ 마지막으로 지역 네트워크 증진(promoting a networked region)을 위해 3국 협력(한국·미국·일본 또는 미국·인도·일본 등)을 강화하고,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과 같은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¹²⁾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해 미국의 군사력 증강뿐만 아니라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분담¹³⁾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9) 이상엽, “미 인도·태평양 전략의 국제정치학적 해석,” 『Strategy 21』 제45호(2019년 8월), p.8.

10) U.S.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https://www.state.gov/wp-content/uploads/2019/11/Free-and-Open-Indo-Pacific-4Nov2019.pdf> (검색일: 2019년 9월 30일), pp.1~4.

11) *Ibid.*, p.21.

12) *Ibid.*, pp.44~46.

13) 여기서 미국이 제시한 책임분담은 국방비 증액, 파트너십 구축 지원, 규칙 기반 국제질서 지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지지 등을 포함한다.

2. 인도 · 태평양 전략 함의

인도 · 태평양 전략은 단순히 자유롭고 열린 인도 · 태평양 지역을 만들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order)를 유지하는 목적이 아니라, 지역 내 안정을 바탕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동맹/파트너국과 협력하여 對 중국 봉쇄를 추구하는 안보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¹⁴⁾ 미 국방부 보고서에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 태평양을 위협하는 핵심도전 세력으로 중국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2015년 시진핑 주석이 공개적으로 남사군도의 군사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남중국해에서 군사기지화를 지속하고 있고,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군사력 사용을 준비하는 모습이 발견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미 국방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중국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국가로 간주하고, 중국을 규칙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국가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¹⁵⁾

그동안 중국은“진주 목걸이 전략(string of pearls)”을 통해 인도양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했고,¹⁶⁾ 이는 2013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주장한 일대일로로 해상 실크로드 건설로 구체화되었다.¹⁷⁾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한 인프라 투자로 동남아시아 지역과 인도양에서 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경제/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인도양과 태평양에 대한 자유롭고 안정적인 접근을 보장하고, 해당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과 호주 뿐만 아니라 인도라는 중국과 인접한 국가를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려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입장에서 인도를 포함하여 중국이 대응해야 하는 지리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국의 능력과 의도를 분산시켜 궁극적으로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고 중국을 봉쇄하려는 것이다.¹⁸⁾ 따라서 인도 · 태평양 전략은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 교수가 언급한 것처럼 지역 내에서도 도전국과 패권국을 경쟁시켜 지역 패권국 성장을 억제해온 미국의 전통적인 역외 균형전략(offshore balancing) 전략¹⁹⁾의 일환으로, 중국을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봉쇄

14) 이상현,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국제정세 및 한반도에 대한 함의,” 『국가전략』 제24호 제2호 (2019년 여름), pp.48~49.

15) U.S. Department of Defense, *op. cit.*, pp.8~10.

16) 박창권, “트럼프 정부의 인도 · 태평양 전략,” 『전략논단』 제27호 제2호(2017년 봄/여름), pp.172~173.

17) 송은희, 전제서, pp.19~20.

18) 김정현, 김을영, “중국의 해양패권도전과 미국의 대응전략,” 『한국해양안보논총』 제2권 제1호(2019년 6월), pp.62~64.

19) 역외균형 (offshore balancing) 전략은 지역 내 패권국의 등장을 견제하기 위해 지역 내 다른 국가를

정책의 구체화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주변국 입장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도·태평양 인근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중국과 관계를 고려하여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1. 일본·호주 : 적극 참여

일본과 호주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모체인 4자(미국, 일본, 호주, 인도) 안보 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²⁰⁾의 구성원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먼저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국가이다. 미 국방부 보고서에서도 일본은“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the cornerstone of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으로 언급되어 있다. 공식적으로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는 것이 특정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일본의 참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공세적 행동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²¹⁾ 일본 입장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 참가를 통해 중국 견제 뿐만 아니라 인도, 호주와 협력을 강화하여 인도·태평양에서 일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와 인도 모디 총리 체재 하에서 일본과 인도는 거의 모든 정부 부처 간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²²⁾ 군사협력 분야에서도 2012년 이후 인도와 일본은 해군

지원하여 두 세력 간 긴장을 키워 반대편의 안전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구체적인 전략은 John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2001), pp.234~266 참고.

20) QUAD는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는 4개 국가(미국, 일본, 인도, 호주) 간 비공식 전략 대화로, 2007년 ASEAN Regional Forum에서 최초 시작되었다.

21) Valery Kistanov, “Japan’s Indo-Pacific Strategy as a Means of Containing China,” *Far Eastern Affairs*, No. 2, Vol. 46(2018), p.18.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2007년 이후부터는 미국, 인도, 일본해군이 서태평양에서 말라바(Malabar)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²³⁾ 또한 일본은 호주와 국방분야 관련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고, 2017년에는 호주와 상호군수협정(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을 체결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맹으로서 호주는 일본과 유사한 장비와 교육훈련 체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운용성을 고려할 때 호주는 일본에게 중요한 파트너이다.²⁴⁾

호주의 경우에는 미 국방부 보고서에서“미래 인도 · 태평양 지역 안전보장을 위한 협력 대상(collaborating to ensure the security of the Indo-Pacific region into the future)”으로 언급되어 있다.²⁵⁾ 최근 10년간 호주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된 주요 이슈는 아시아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증가에 대한 호주의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중국은 호주에게 매우 중요한 무역 파트너임과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 증가는 호주의 안보를 위협하는 불안정 요인이기 때문이다.²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인도 · 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2016년 호주 국방백서에서는 현재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호주에게 미국과 동맹은 안보를 지키는 핵심이며, 인도 · 태평양 지역을 안전하고, 열린, 그리고 번영 가능한 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국방목표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²⁷⁾

2. 인도 : 인도 · 태평양 전략은 지지, 적극적 참여는 유보

인도의 경우 정치/경제/안보분야에서 인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인도 · 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지만, 중국과 관계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참여는 유보하고 있다. 2019년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간 QUAD 회의에서도 인도해군 참모총장은 QUAD가 특정국가(중국)를 견제하기 위해 발전되는 것은 반대한다고 언급했다.²⁸⁾ 이러한 인도의 입장은 중

22)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Trump Administration’s Free and Open Indo-Pacific: Issues for Congress,”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R45396> (검색일 : 2019년 10월 8일), p.20.

23) David Scott, “The Geoeconomics and Geopolitics of Japan’s ‘Indo-Pacific’ Strategy,” *Journal of Asian Security and International Affairs*, Vol. 6, No. 2(2019), p.143.

24)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op. cit.*, p.21.

25) U.S. Department of Defense, *op. cit.*, pp.22~26.

26)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op. cit.*, p.21.

27)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se, *2016 Defense White Paper*, <https://www.defence.gov.au/WhitePaper/Docs/2016-Defence-White-Paper.pdf>(검색일: 2019년 11월 1일), p.14~15.

28)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op. cit.*, p.18.

국과 인도의 경제/안보 관계에서 기인한다. 영국에서 독립 후 인도 안보의 최대위협은 중국, 파키스탄과 육지 국경분쟁이었다. 1962년 악사이친(Aksai Chin)에서 발생한 군사 충돌로 다수(약 3,000명) 사상자가 발생했고, 2017년에는 인도, 중국, 부탄의 국경지역의 도클람(Doklam)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약 70일간 상호 대치하여 군사적 긴장이 증대되기도 했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분쟁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²⁹⁾ 경제적 측면에서 2017년 기준으로 중국은 인도의 4번째 수출국(인도 수출의 4.3%를 차지)이고, 1번째 수입국(인도 수입의 16.3%를 차지)이다.³⁰⁾ 다시 말해서 인도는 중국과 국경분쟁 악화 및 중국-파키스탄 간 군사협력 강화, 對 중국 경제의존도를 고려하여 인도·태평양 전략의 취지에는 찬성하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인도는 지역 내 중국의 부상을 위협(threat)이 아니라 도전(challenge)으로 인식하고, 양국 간 경제/안보 관계를 고려하여 중국과 긴장을 완화하고, 대립 보다는 관계를 발전/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³¹⁾ 이를 위해 인도는 미국과 중국에 대해 최적화된 헤징(Hedging) 전략을 구사하면서 인도의 국가이익을 증진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의 회원으로 중국과 경제/안보적 협력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인도양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지하여 미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³²⁾

3. 대만 : 적극 참여

대만은 인도·태평양 전략이 공식화된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양안(兩岸)관계를 고려할 때 안보상황 개선을 위해 미국의 파트너가 되겠다는 대만의 입장은 이해할만 하다. 대만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 미국의 지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만은 2018년 5월 외교부 산하에 인도·태평양 부서(the Indo-Pacific Affairs Section)를 설치하여, 인도·태평

29) 최원기, “최근 인도의 외교전략,” 『IFANS FOCUS』 (2019년 8월 9일), p.2.

30) CIA factbook, “India,”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in.html> (검색일 : 2019년 11월 10일).

31)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op.cit.*, p.19.

32) 이수형,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과 우리의 전략적 방책,” 『Issue Briefing』 제17-23호 (2017), pp.5~6.

양 전략에서 대만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역할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만은 2018년 8월 인도·태평양 안보 대화(Indo-Pacific Security Dialogue)를 개최했다. 당시 대만은 ① 미국과 가치/믿음의 공유, ② 지역 내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 건설에 도움, ③ 대체할 수 없는 지전략적 위치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³³⁾

이러한 대만의 적극적 참여 의지로 미 국방부 보고서에서는“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고 능력 있는 민주국가로 미국의 파트너”라고 언급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표시했다는 것이다. 2017년 12월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도 미국은 대만과“하나의 중국”정책에 부합된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미 국방부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적시하고 대만을 높은 수준의 파트너로 언급했다. 이것은 미국이 1972년부터 지속 유지하고 있는“하나의 중국”원칙을 흔들고 있다는 것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³⁴⁾

4. ASEAN : ASEAN 주도 새로운 인도·태평양 질서 확립 추진

지정학적으로 동남아시아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다.³⁵⁾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의 경우 인도와 유사하게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개입을 환영하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고려하여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³⁶⁾ 왜냐하면 중국은 ASEAN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로 2018년 기준 ASEAN 전체 수출의 13.9%, 수입의 20.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³⁷⁾ ASEAN으로서는 선불리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하지만 최근 들어 ASEAN은“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ASEAN의 전망(ASEAN Outlook for the Indo-Pacific)”을 발표하여 ASEAN 주도 질서 확립

33) Denny Roy, “Taiwan’s Potential Role in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Convergence in the South Pacific,” *NBR Special Report*, No. 77(2019년 3월), pp.11~14.

34) Howard Wang, “Taiwan’s Security Role in the U.S. Indo-Pacific Strategy,” 『*The Diplomat*』 (2019년 6월 27일).

35) Prashanth Parameswaran, “ASEAN’s Role in a U.S. Indo-Pacific Strategy,” https://www.wilsoncenter.org/sites/default/files/2018-09_aseans_role_parameswaran.pdf(2019년 10월 18일).

36) 설인호,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전개방향과 시사점,” 『*국방논단*』 제174호(2019년 1월 7일), p.8.

37) ASEAN, “ASEAN Economic Integration Brief,” https://asean.org/storage/2019/06/AEIB_5th_Issue_Released.pdf (검색일 : 2019년 10월 8일), p.3.

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³⁸⁾ 여기서 ASEAN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나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편승(bandwagon)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ASEAN 주도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³⁹⁾ ASEAN 주도 질서의 핵심은 포용성(inclusivity)과 ASEAN 중심(centrality)으로 요약될 수 있다. 포용성(inclusivity)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를 포함하고, ASEAN 중심(centrality)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ASEAN이 더 이상 외부자(outsider)가 아니라 핵심 행위자(insider)로서 행동하겠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ASEAN 주도 인도·태평양 개념은 최악의 경우 ASEAN이 회원국의 국가이익에 따라 중국 또는 미국에 편승하여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지양하고, ASEAN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대국 간 관계 안정 및 사회/경제적 협력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⁴⁰⁾

5. 유럽 국가(영국, 프랑스) : 적극 참여

미국은 인도·태평양 주변 국가들 뿐만 아니라 유럽 동맹국들도 끌어들이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과거 인도양과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국가들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군사활동 및 인접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⁴¹⁾ 예를 들어 2019년 5월에는 프랑스 항공모함 샤를 드골함(Charles de Gaulle)이 인도양에서 미국, 일본, 호주 함정들과 연합훈련을 실시했고, 당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프랑스와 영국 뿐만 아니라 덴마크와 다른 유럽국가들도 인도양과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지하는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⁴²⁾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일본, 호주, 대만, 일부 유럽국가(영국, 프랑스)는 적극 참여하고 있고, 인도와 ASEAN은 미국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지지

38) Tang Siew Mun, "ASEAN Found Its Voice with the Indo-Pacific Concept," 『South China Morning Post』 (2019년 6월 24일).

39) Premesha Saha, "ASEAN's Indo-Pacific Outlook: an Analysis," <https://www.orfonline.org/expert-speak/aseans-indo-pacific-outlook-an-analysis-52542>(2019년 11월 3일).

40) Mie Oba, "ASEAN's Indo-Pacific Concept and the Great Power Challenge," 『The Diplomat』 (2019년 7월 17일).

41)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France, the United Kingdom, and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Issues for Congress," <https://fas.org/sgp/crs/row/IF11052.pdf> (검색일 : 2019년 11월 12일), p.1.

42) 이장훈, "인도·태평양 전략 vs 일대일로, 문 정부의 선택은?" 『주간조선』 (2019년 6월 10일).

하고 있지만 중국과 관계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참여는 유보하고 있다. 인도 · 태평양 전략에 대한 타국의 입장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추후 한국의 입장을 결정함에 있어 한국과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인도, ASEAN, 호주 등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IV. 인도 · 태평양 전략 참여시 장 · 단점

2017년 청와대 경제보좌관은“우리는 인도 · 태평양 전략에 편입될 필요가 없다고 본다”라고 언급했고, 이후 청와대는“미국이 새로 제시하고 있는 인도 · 태평양 개념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외교 다변화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나, 공통의 전략적 목표를 추진해 나가는데 적절한 개념인지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⁴³⁾ 하지만 2019년 6월 한 · 미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미 국무부도“한 · 미 정상은 강력한 한 · 미 동맹이 인도 ·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혔다.⁴⁴⁾ 이것은 한국이 인도 · 태평양 전략에 대해 최초로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양국 정상이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⁴⁵⁾ 위 내용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은 인도 · 태평양 전략 참여 여부를 최초 유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 · 태평양 전략 참여 여부와 수준 결정시 제3장에서 언급한 타국의 사례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장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1. 인도 · 태평양 전략 참여시 예상되는 문제점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의 목적 중 하나는 對 중국 봉쇄이다. 따라서 한국의 인도

43) 신성호,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대응,” 『군사논단』 제95호(2018년 가을), p.21.

44) 우정엽, 『미 · 중 패권전쟁 하 한반도 안보 :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19), p.4.

45) Anthony B. Kim, “Why South Korea Is Key to America’s Indo-Pacific Strategy,” <https://www.heritage.org/asia/commentary/why-south-korea-key-americas-indo-pacific-strategy>(2019년 7월 22일).

· 태평양 전략 참여는 중국과 관계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과거 한국 정부는 사드 (THAAD)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조치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악화된 한·중 관계 복원을 위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편입하지 않을 것이며, 對 중국 견제를 전제로 한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에도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2017년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참가를 유보한 결정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다.⁴⁶⁾ 중국은 한국 수출의 1/4 이상(약 26.7%)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을 합친 것 보다 크다.⁴⁷⁾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및 경제의존도를 고려하면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시 과거 사드 (THAAD) 배치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제보복을 예상할 수 있다.

둘째, 현재 남한과 북한의 대치상황 해결,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은 핵심적이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경제 제재에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또한 북한 비핵화는 북한과 미국 간 관계 개선의 선결조건임을 고려 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과 대립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⁴⁸⁾

셋째, 인도·태평양 전략이 미국의 대전략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기응변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⁴⁹⁾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이나 계획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⁵⁰⁾ 뿐만 아니라 태평양사령부(USPACOM)를 인도·태평양사령부(USINDOPACOM)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상징적 조치일 뿐 실제 이를 뒷받침하는 병력 또는 재원의 투입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체화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⁵¹⁾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속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불리 참여를 결정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46) 이수형, 전제서, p.4.

47) Park Cheol Hee, "South Korea is a Hesitant, but Friendly, U.S. Ally in the Indo-Pacific," <https://www.cfr.org/blog/south-korea-hesitant-friendly-us-ally-indo-pacific>(2019년 3월 26일).

48) *Ibid.*

49) 유상현,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정책: 현상진단과 전망," 『국방연구』 제62권 제2호(2019년 6월), p.55.

50) Brian Harding, "The Trump Administration's Free and Open Indo-Pacific Approach," *Southeast Asian Affairs*, Vol. 2019(2019), p.61.

51) 강선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실현과 전망," 『IFANS FOCUS』 (2018년 6월 15일), p.2.

2.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시 장점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시 장점은 크게 안보와 경제분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안보적 측면에서 무정부적인 국제정치 구조 상 국가는 생존과 자구(self help)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추구할 수 밖에 없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가시 중국의 경제보복이 예상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생존과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에게 경제발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현재 한국에게 당면한 위협은 북한이고, 잠재적 위협은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일 것이다.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생존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굳건한 한·미 동맹 유지 하 군사력 증강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동맹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위협의 변화, 국력의 쇠퇴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미·일 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⁵²⁾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지속적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 상대적으로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 신 애치슨 라인의 주장이 등장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⁵³⁾ 한국이 중국과 관계를 고려하여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모호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한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서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고,⁵⁴⁾ 최악의 경우 한·미 동맹에서 방기(abandonment) 될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통해 공고한 한·미동맹을 유지하여 한국의 안보를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경제분야에서 인도양은 유럽, 중동, 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해상교통로이며 전 세계 해상무역의 핵심 해역이다. 특히, 인도양은 전 세계 석유 수송에 이용되는 주요 해협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호르무즈 해협, 말라카 해협과도 인접해 있다. 한국에게도 페르시아만 - 호르무즈 해협 - 인도양 - 말라카 해협 -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해상교통로는 경제발전 보장을 위한 원자재 수입 및 무역을 위한 핵심 해상교통로이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은 세계 최대 시장이며, 세계 무역·투자의 중심지로 글로벌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 국방부 보고서가 언급한 것처럼 이 지역은 전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해상무역의 60%가 인도·태

52) 이대우, 전계서, p.4.

53) 홍규덕,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 외교…점점 찾아야, 『중앙일보』 (2019년 7월 10일).

54) 우정엽, 전계서, p.4.

평양 지역을 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게 인도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2010년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했고, 2014년에는 인도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왔으며, 협력의 분야도 경제를 넘어 정치, 안보, 방산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⁵⁵⁾ 따라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도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 인도·태평양 전략이 추구하는 목표는 과거부터 계속되고 있는 개방된 시장, 자유로운 사회, 법치,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한 미국의 對 아시아 정책의 연장선 상에 있다.⁵⁶⁾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트럼프 행정부만의 독자적 주장이 아니라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⁵⁷⁾ 뿐만 아니라 2018년 12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아시아 안심법안 (the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에 서명했다.⁵⁸⁾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15억 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⁵⁹⁾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임기응변식 또는 일회성을 전략에 그칠 것 같지는 않다.

지금까지 한국은 중국의 반응을 고려하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요구 결정을 미루거나, 필요시 최소의 반응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한국도 인도·태평양 주변 국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이다.⁶⁰⁾

55) 이수형, 전제서, p.5.

56) Brian Harding, *op. cit.*, p.65.

57) 최원기,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근 동향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IFANS FOCUS』 (2018년 9월 4일), p.4.

58) 이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안보 및 방위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강력한 군사력 전개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59) 김현욱, 전제서, p.6.

60) 권태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자유』 제534호 (2018년 2월), p.20.

IV. 인도 · 태평양 전략 참여시 한국해군의 역할

인도 · 태평양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도 · 태평양 전략에서는 해양이 중심이 될 것이다. 또한 동맹 및 파트너 국가에 대한 미국 동참 요구도 해양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 따라서 한국이 인도 · 태평양 전략에 참가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러한 국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해군력의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인도 · 태평양 전략 지원을 위해 해군력은 어떠한 역할은 수행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국가 외교정책을 수행하기 수행하는 선봉장(vanguard)으로 해군력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1. 항해의 자유 작전 지원/수행

인도 · 태평양 전략이 對 중국 봉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인도 · 태평양 전략이 추구하는 규칙 기반 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등은 한국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항해의 자유 보장이다.⁶¹⁾ 인도 · 태평양 전략의 중요 부분으로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은 자국의 해군함정을 이용하여 항해의 자유작전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1979년 이후 미 해군은 항해의 자유작전을 실시하고 있고,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총 428회의 항해의 자유작전이 실시되었다.⁶²⁾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작전이 대표적이 사례로, 2018년 11월 미 해군 항공모함인 레이건함(USS Ronald Reagan)과 스텐니스함(USS John C. Stennis)이 중국해군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필리핀해에서 무력현시를 실시했다. 당시 미 7함대 사령관은 2개의 항공모함 전단에 의한 무력현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 태평양과 항해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⁶³⁾ 향후에도 인도 · 태평양 전략의 실행 수단으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과도한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항해의 자유작전 횟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⁶⁴⁾

동시에 미국은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 항해의 자유나 해양의 법적 사용을 보장하

61) 신성호, 전제서, p.21.

62) <http://policy.defense.gov/OUSSDP-Offices/FON/> 참고.

63) Teddy Ng, "US Carriers Conduct Warfare Drills in Philippine Sea to Support Free and Open Indo-Pacific," 『South China Morning Post』 (2019년 10월 12일).

64)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op. cit.*, p.13.

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국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 및 군사기지화 등이 남중국해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협하는 조치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⁶⁵⁾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작전 참가 또는 공식적 지지 요청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자유무역, 자유로운 항해 등)를 바탕으로 성장한 국가이다. 인도·태평양에서 해상교통로 안전확보는 한국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으로, 안정적 해상교통로 유지 없이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⁶⁶⁾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여부를 떠나 해양에서 항해의 자유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발전 보장을 위해 해군력을 이용하여 인도·태평양에서 항해의 자유를 유지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단순히 미국의 항해의 자유작전을 지지할 수도 있고, 청해부대 파병시 한국에서 아덴만으로 이동하는 도중 미 해군과 연합하여 항해의 자유작전에 참가할 수도 있고, 별도로 항해의 자유작전 수행을 위해 함정을 파병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인도·태평양에서 미 해군과 훈련 강화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동맹에 관한 대표적인 데이터인 Alliance Treaty Obligations and Provisions (ATOP)에 따르면 동맹의 공고함을 측정하는 기준 중 정례 군사훈련 실시여부가 포함된다.⁶⁷⁾ 하지만 현재 한국과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으로 한반도 인근해역에서 연합훈련을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만약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연합훈련이 제한된다면 남중국해나 인도양에서 미국해군과 한국해군간 연합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동중국해나 남중국해, 인도양에서 미국과 연합훈련은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규칙 기반 질서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한국해군은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5월

65) 박창권, 전제서, p.188.

66) Park Cheol Hee, *op.cit.*

67) Ashley Leeds and Sezi Anac, "Alliance Institutionalization and Alliance Performance,"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31, No. 3(2005), pp.185~188.

최초 실시된 Pacific Vanguard 훈련에서 한국해군의 왕건함은 미국, 호주, 일본 함정과 남서태평양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미 7함대 사령관은 “Pacific Vanguard 훈련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공통의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4개 해양 국가들이 참여한 훈련이었다. 이 훈련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합능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언급했다.⁶⁸⁾

3. 소규모 다자간 협력을 위한 해군 간 훈련/함정방문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은 소다자주의 협력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고, 이것은 ASEAN 국가와 소다자주의 협력을 강조하는 한국의 신 남방정책과도 일치한다.⁶⁹⁾ 인도·태평양 지역 인접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군함정 간 훈련이나 상호방문도 효과적이다. 한국과 인도는 양국 간 해양에서 상호이해와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정 상호방문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도해군 함정이 2012년과 2015년 한국을 방문했고, 한국해군 함정은 2016년 인도 관함식에 참가했다. 2017년에는 인도해군과 한국해군이 인도양에서 대해적, 군수지원, 헬기 이착함 훈련을 실시했고, 이러한 훈련은 양국 간 상호이해 및 협력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했다.⁷⁰⁾ 호주는 한국이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발전된 방위협력을 맺고 있는 국가로 양국은 격년 주기로 Haedoli/Wallaby 대잠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에는 미국, 한국, 호주가 핵무기 관련 부품의 해상 밀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⁷¹⁾

일본, 대만을 제외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도 한국과 입장이 유사하다. 한국은 이러한 국가들과 소규모 협력을 통해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태평양 지역 접 국가들과 해양에서 상호 협력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해군력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68) U.S. 7th Fleet Public Affairs, “U.S., Allied Forces Launch Inaugural Pacific Vanguard Exercise,” <https://www.c7f.navy.mil/Media/News/Display/Article/1855881/us-allied-forces-launch-inaugural-pacific-vanguard-exercise>(2019년 5월 23일).

69) 최원기, 전제서, p.5.

70) Harold et al., “The Thickening Web of Asian Security Cooperation Deepening Defense Ties Among U.S. Allies and Partners in the Indo-Pacific,” 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3125.html (검색일 : 2019년 11월 15일), p.85.

71) *Ibid.*, pp.91~93.

4. 초국가적 · 비군사적 위협 대응

미 국방부 보고서에서도 나타나듯이 인도 · 태평양 전략은 인도적 지원과 재난구호 등에서도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재난이 아시아 지역과 인도양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인도 · 태평양 전략에 참여하여 책임있는 경제강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도양과 아시아 해양에서 해상교통로 안보를 위협하는 해적사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국제해사국에 따르면 다국적 해군함정이 작전하는 아덴만 인근에서 해적사건은 감소하는 반면 아프리카 서부에서 해적활동은 증가하고 있다.⁷²⁾ 동남아시아의 경우도 2009년까지 해적사건 발생횟수는 감소했지만, 2009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5년에는 약 150여건의 해적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⁷³⁾ 한국해군은 아덴만과 인도양 근해에서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상선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해군의 이러한 능력은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 인신매매, 불법이민, 밀수, 해적으로부터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⁷⁴⁾

V. 결론

19세기와 20세기에는 북대서양이 세계 경제/군사의 중심지였다면 21세기는 인도 · 태평양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다.⁷⁵⁾ 이러한 흐름에 따라 미국은 인도 · 태평양 전략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이 인도 · 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앞서 언급한 주변국의 입장과 한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 참여시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참여 여부와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72) Ian Speller, 2014, *Understanding Naval Warfare*, New York: Routledge, p.160.

73)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IMB),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2018)*, https://www.icc-ccs.org/reports/2018_Annual_IMB_Piracy_Report.pdf(검색일: 2019년 10월 28일), p. 6.

74) Park Cheol Hee, *op. cit.*

75) Rory Medcalf, "Indo-Pacific Visions : Giving Solidarity a Chance," *Asia Policy*, Vol. 14, No. 3(2019년 7월), p.85.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참여에 있어 중국과 불편한 상황이 없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다만, 한국의 사활적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당면한 직접적 위협 및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사력 증강과 더불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 즉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인도·태평양 시대에는 해군력의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시 해군력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 송은희. 『인도·태평양 시대 ‘동아시아 지역주의’ 가능성과 한계』.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
- 우정엽. 『미·중 패권전쟁 하 한반도 안보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19.
-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se. *2016 Defense White Paper*. <https://www.defence.gov.au/WhitePaper/Docs/2016-Defence-White-Paper.pdf>(검색일: 2019년 11월 1일).
- Harold et al. *The Thickening Web of Asian Security Cooperation Deepening Defense Ties Among U.S. Allies and Partners in the Indo-Pacific*. 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3125.html (검색일: 2019년 11월 15일).
- Ian Speller. *Understanding Naval Warfare*. New York: Routledge, 2014.
- John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2001.
- U.S.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https://www.state.gov/wp-content/uploads/2019/11/Free-and-Open-Indo-Pacific-4Nov2019.pdf> (검색일: 2019년 9월 30일).
- U.S. Department of Stat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https://www.state.gov/a-free-and-open-indo-pacific-advancing-a-shared-vision>(검색일: 2019년 11월 4일).

〈논문〉

- 강선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실현과 전망.” 『IFANS FOCUS』 (2018년 6월 15일).
- 권태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자유』 제534호 (2018년 2월).
- 김정현, 김을영. “중국의 해양패권도전과 미국의 대응전략.” 『한국해양안보논총』 제2권 제1호 (2019년 6월).
- 김현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IFANS FOCUS』 (2019년 6월 18일).

- 박창권.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략논단』 제27호 제2호(2017년 봄/여름).
- 설인호.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전개방향과 시사점.” 『국방논단』 제1740호 (2019년 1월 7일).
- 신성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대응.” 『군사논단』 제95호(2018년 가을).
- 이대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반도.” 『정세와 정책』 제12호(2019년 7월 2일).
- 유상범.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정책 : 현상진단과 전망.” 『국방연구』 제62권 제2호 (2019년 6월).
- 이상엽. “미 인도·태평양 전략의 국제정치학적 해석.” 『Strategy 21』 제45호(2019년 8월).
- 이상현.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국제정세 및 한반도에 대한 함의.” 『국가전략』 제24호 제2호(2019년 여름).
- 이수형.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과 우리의 전략적 방책.” 『Issue Briefing』 제17-23호(2017).
- 최원기.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근 동향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IFANS FOCUS』 (2018년 9월 4일).
- 최원기. “최근 인도의 외교전략.” 『IFANS FOCUS』 (2019년 8월 9일).
- 하영선, 전재성.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미·중의 포석 전개와 한국의 4대 미래 과제.” 『EAI 논평』 (2019년 6월 25일).
- Ashley Leeds and Sezi Anac. “Alliance Institutionalization and Alliance Performance.”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31, No. 3(2005).
- Brian Harding. “The Trump Administration’s Free and Open Indo-Pacific Approach.” *Southeast Asian Affairs*, Vol. 2019(2019).
- David Scott. “The Geoeconomics and Geopolitics of Japan’s ‘Indo-Pacific’ Strategy.” *Journal of Asian Security and International Affairs*, Vol. 6, No. 2(2019).
- Denny Roy. “Taiwan’s Potential Role in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Convergence in the South Pacific.” *NBR Special Report*, No. 77(2019년 3월).
- Rory Medcalf. “Indo-Pacific Visions : Giving Solidarity a Chance.” *Asia Policy*, Vol. 14, No. 3(2019년 7월).
- Valery Kistanov. “Japan’s Indo-Pacific Strategy as a Means of Containing China.” *Far Eastern Affairs*, No. 2, Vol. 46(2018).

〈신문 및 인터넷〉

이서향.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한국의 과제.” 『KIMs Periscope』 제105호 (2017년 12월 1일).

이장훈. “인도·태평양 전략 vs 일대일로, 문 정부의 선택은?” 『주간조선』 (2019년 6월 10일).

이재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2019) 평가.” 『KIMs Periscope』 제162호 (2019년 6월 21일).

홍규덕.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 외교...접점 찾아야.” 『중앙일보』 (2019년 7월 10일).

Anthony B. Kim. “Why South Korea Is Key to America’s Indo-Pacific Strategy.” <https://www.heritage.org/asia/commentary/why-south-korea-key-americas-indo-pacific-strategy>(2019년 7월 22일).

ASEAN. “ASEAN Economic Integration Brief.” https://asean.org/storage/2019/06/AEIB_5th_Issue_Released.pdf (검색일 : 2019년 10월 8일).

CIA factbook. “India.”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in.html> (검색일 : 2019년 11월 10일).

Howard Wang. “Taiwan’s Security Role in the U.S. Indo-Pacific Strategy.” 『The Diplomat』 (2019년 6월 27일).

Mie Oba. “ASEAN’s Indo-Pacific Concept and the Great Power Challenge.” 『The Diplomat』 (2019년 7월 17일).

Park Cheol Hee. “South Korea is a Hesitant, but Friendly, U.S. Ally in the Indo-Pacific.” <https://www.cfr.org/blog/south-korea-hesitant-friendly-us-ally-indo-pacific>(2019년 3월 26일).

Prashanth Parameswaran. “ASEAN’s Role in a U.S. Indo-Pacific Strategy.” https://www.wilsoncenter.org/sites/default/files/2018-09_aseans_role_parameswaran.pdf(2019년 10월 18일).

Premesha Saha. “ASEAN’s Indo-Pacific Outlook: an Analysis.” <https://www.orfonline.org/expert-speak/aseans-indo-pacific-outlook-an-analysis-52542> (2019년 11월 3일).

Tang Siew Mun. “ASEAN Found Its Voice with the Indo-Pacific Concept.” 『South China Morning Post』 (2019년 6월 24일).

Teddy Ng. “US Carriers Conduct Warfare Drills in Philippine Sea to Support Free and Open Indo-Pacific.” 『South China Morning Post』 (2019년 10월 12일).

- U.S. 7th Fleet Public Affairs. “U.S., Allied Forces Launch Inaugural Pacific Vanguard Exercise.” <https://www.c7f.navy.mil/Media/News/Display/Article/1855881/us-allied-forces-launch-inaugural-pacific-vanguard-exercise>(2019년 5월 23일).
-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France, the United Kingdom, and the Free and Open Indo- Pacific (FOIP): Issues for Congress.” <https://fas.org/sgp/crs/row/IF11052.pdf> (검색일 : 2019년 11월 12일).
-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Trump Administration’s Free and Open Indo-Pacific: Issues for Congress.”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R45396>(검색일 : 2019년 10월 8일).

Abstract

The Stances of Neighboring States to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South Korean Navy

Han, Jong-Hwan*

In 2019,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and the U.S. Department of State issued two reports to announce their plan to fulfill “free and open Indo-Pacific”. Two reports commonly insisted on the support and participation from allies and partners to maintain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Indo-Pacific. In response to this, neighboring states in the Indo-Pacific, including Japan, Australia, India, ASEAN, and Taiwan have different perspectives and stances based on their national interests. South Korea, too, has not clearly announced its position because they need to consider the alliance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as well as relationship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is report focuses on the stances of neighboring states to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expected pros and cons of the participation of the strategy. In addition, when considering the name of strategy, the Indo-Pacific, naval power will be a main instrument to implement the strategy. Thus,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the role of naval power in the Indo-Pacific strategy.

Key words : the Indo-Pacific strategy, role of naval power.

논문접수 : 2020년 1월 9일 | 논문심사 : 2020년 1월 20일 | 게재확정 : 2020년 1월 30일

* Lieutenant Commander of the ROK Navy, ROKS Hansando, Ph.D. of Political Science from the University of Iowa